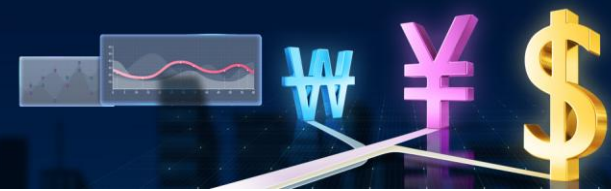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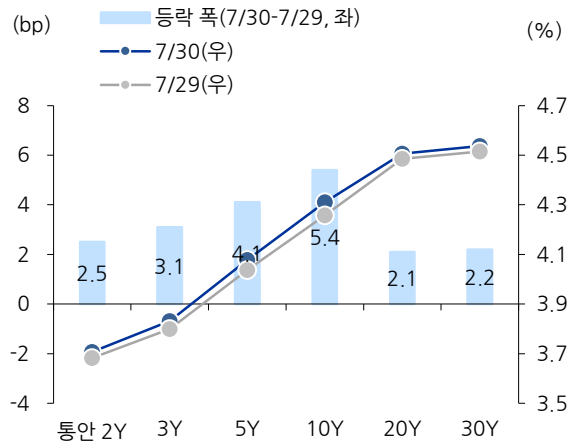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7/30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831%	3.1	-8.6
	한국 국고채 10년물	4.311%	5.4	-8.1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48.0	45.7	47.5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02	-7.0	33.0
	10년 국채 선물(LKTB)	105.38	-46.0	83.0
	미국채 2년물	4.248%	-2.6	-10.0
	미국채 10년물	4.674%	-0.6	-2.2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2.6	40.5	34.7
	독일국채 10년물	3.177%	-0.1	-4.9
	호주국채 10년물	4.997%	7.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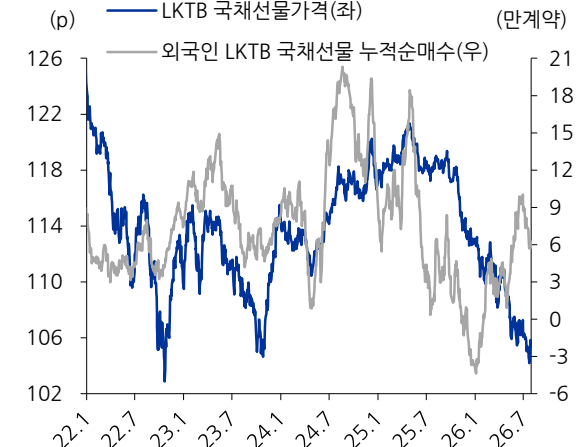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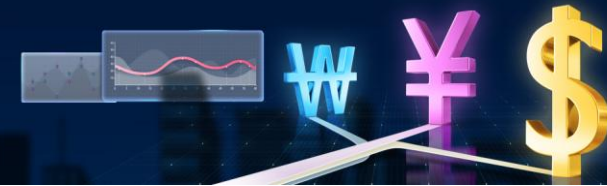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 FOMC 여파.
-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최근 미국 금리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시중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발언. 이에 미국 금리 뿐 아니라 국내 금리 역시 장기물 위주로 상승폭 확대.
- 장 종료 후 발표될 8월 국고채발행계획에 대한 경계심도 영향. 최근 초장기물 약세로 인해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있었으나 불확실성 여전해 자금 유입 제한.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장단기물 방향 엇갈리며 커브 스티프닝 마감.
- BOE에서 기준금리 동결 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차단하면서 영국, 주요 유럽금리와 미국 단기금리 하락세.
- 이후 미국 2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내수 증가세는 여전히 강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확인함에 따라 단기금리 추가 하락폭은 제한. 장기금리는 전일 워시 의장의 금리 상승 요인 여파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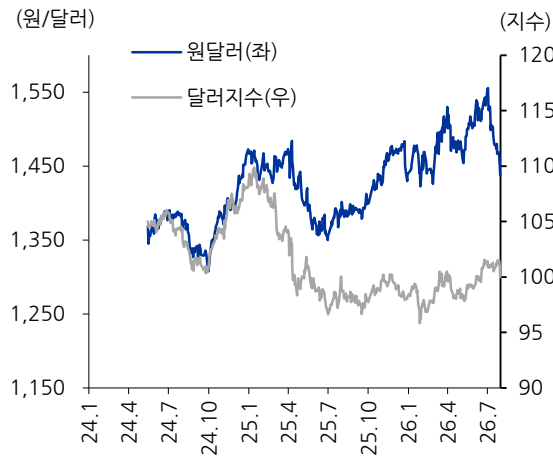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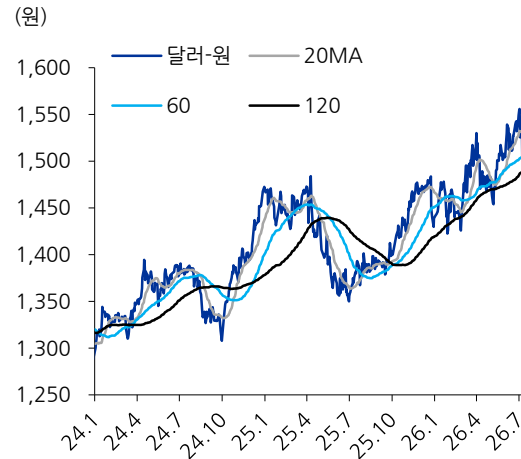
(단위: %, \$)

		7/30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437.40	-0.6%	-2.0%	-0.1%
	달러지수	99.99	-0.8%	-1.4%	1.7%
	달러/유로	1.15	0.5%	1.3%	-1.9%
	위안/달러(역외)	6.75	-0.2%	-0.4%	-3.4%
	엔/달러	159.53	-2.4%	-2.6%	1.8%
	달러/파운드	1.35	0.7%	1.1%	0.0%
	헤알/달러	5.06	-1.1%	-0.5%	-8.3%
상품	WTI 근월물(\$)	83.59	-1.0%	-9.3%	45.6%
	금 현물(\$)	4,103.33	0.9%	1.3%	-5.0%
	비트코인(\$)	64,775	1.9%	-0.1%	-26.3%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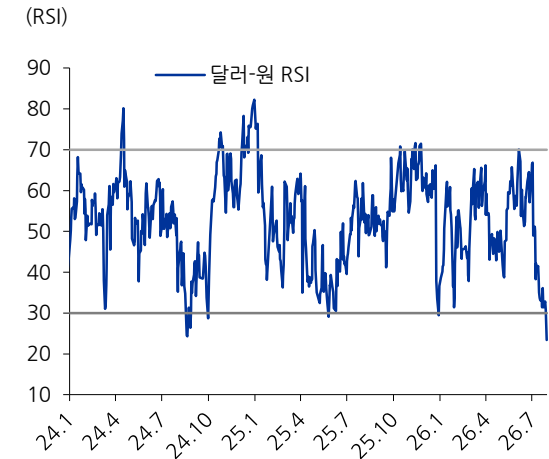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美 FOMC 위시의 완화적 발언과 네고물량에 -9.30원 하락한 1,437.40원 마감(야간 1,418.00원).
- 美 7월 FOMC 위시 의장은 시장금리 상승을 시장 스스로 금융환경을 긴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안도감을 드러냄.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해석되며 달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대거 출회되며 환율 하락을 주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1.3조원 순매수하며 원화 강세를 지지.
-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에 힘입어 야간거래에서 -19.40원 추가 하락한 1,418원에 마감. 이는 7/2일 고점(주간종가 1,555원) 대비 -140원 가량 하락한 수준으로 단기 급락에 대한 되돌림 유의. 금일 日 금정위 내용 주목할 필요.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美 PCE물가 예상 하회와 급격한 엔화 강세에 급락(DXY -0.8%).
- 美 6월 PCE 물가는 에너지상품 하락(-9.2%mom)에 전월비 +0.1% 기록하며 전월(+0.5%) 대비 상승세 둔화. 특히 근원 PCE 물가가 전월비 +0.1%로 예상(+0.2%) 하회하며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
- 이에 더해 마-일 양국이 동시 환시 개입하면서 달러-엔이 -2.4% 하락하고(엔화 강세) 달러 급락. 日 BOJ의 달러 매도, 美 베센트 재무장관 주도로 뉴욕연은의 레이트체크 있었다는 소식.
-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던 美 7월 FOMC 이후, 日 엔화 개입까지 겹치며 달러 약세 압력 강해짐. 금일 BOJ 금정위 결과에 따라 재차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